

바이오센서, 10대 핵심기술 육성

지경부, IT 핵심소재 및 전력 반도체도 ... 5년간 1조2400억원 투입

정부는 차세대 스마트기기 등 정보기술(IT)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5년간 총 1조24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매출 49조8000억원, 수출 197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.

지식경제부는 4월4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제8차 IT정책자문단회의를 열어 <IT 10대 핵심기술>을 논의했으며, 지식경제R&D전략기획단은 IT산업 발전을 통해 사회·경제 분야를 스마트화하는 <스마트피아 구현>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력 IT산업 경쟁력 확대, 소프트웨어(SW)소재산업 경쟁력 강화, 미래 신산업 육성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.

또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스마트기기 핵심기술 확보로 생태계를 선점하고 IT 핵심소재의 국산화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SW·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5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.

5대 전략에는 IT와 타산업의 융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무선 통신·방송 네트워크 융합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R&D전략기획단은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할 10대 IT핵심기술로 ▲차세대 디바이스 핵심기술 ▲IT 핵심소재 ▲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▲하이브리드 스토리지 ▲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▲테라헤르츠 및 양자 정보통신 ▲무인화 플랫폼 ▲바이오센서 ▲라이프케어 로봇 ▲전력 반도체 등을 선정했다.

기획단은 10대 분야에 대해 5년간 1조2400억원(정부 6200억원)을 투자해 2020년 매출 49조8000억원, 수출 197억달러를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. 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04>